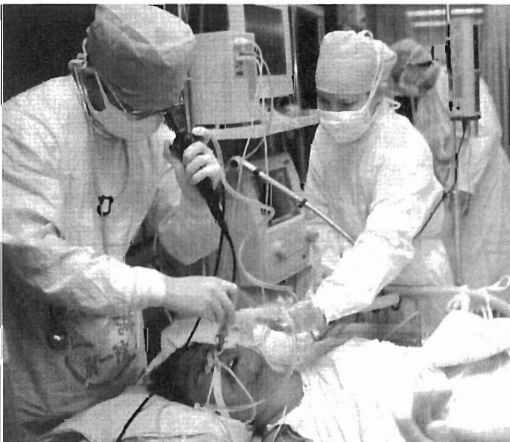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질병방역체계 구축

배종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I. 들어가는 글

금년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5월 31일로 200만을 넘어서, 전년대비 7.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제주관광 홍보 등의 여러 이유를 언급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 중국 및 동남아를 덮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이하 사스) 환자가 1명이라도 제주도내에 발생했다면 관광객 증가가 가능했는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스포츠 대회에 참석한 선수단 가운데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그 스포츠 대회는 제대로 치러질 수 없을 것이며, 선수 임원뿐만 아니라 방문객에 있어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쾌적하고 풍요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는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등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비자 방문에 따른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 질 제주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식중독이 만연한다면 이상의 모든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코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도내 전염병 발생 현황 및 방역체계

전염병은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사회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금년도에 발생한 사스의 경우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제사회가 질병의 정체를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전세계로 퍼져나간 점을 비추어 볼 때,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로 말미암아 향후 제주도내 발생한 전염병이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세계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제주도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제주도내에 발생한 3대 주요 전염병으로는 세균성 이질, 홍역, 유행성

〈표 1〉 제주도내 주요 전염병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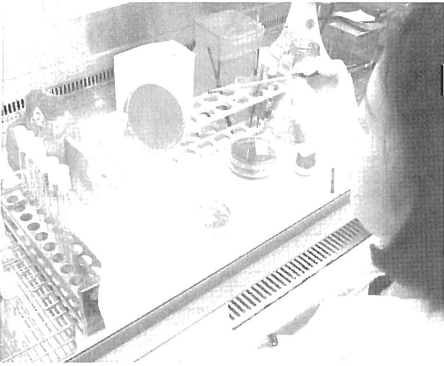
전염병\연도	2000	2001	2002
세균성이질	1,664	139	-
홍역	1,567	652	-
유행성이하선염	38	22	41
비브리오패혈증	-	1	1
쯔쯔가무시증	-	5	4
말라리아	18	6	2

이하선염이 있다(표 1). 이중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은 질병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접촉된 타인을 감염시키는 호흡기 전염병이므로,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 발생자를 찾아서 취하는 방역 조치는 소극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다. 오직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이 가장 최선이므로, 개인별 백신접종력 전산 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취학 전 아동들이 제때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토록 한다. 이와 함께,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상기 질병의 대상자들이 주로 취학 아동이라는 점에서 학교 교사들이 이들 질병 발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발병 의심 학생에 대한 조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체계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도 해당 질병을 방역하는데 주효하다.

반면 세균성 이질은 복통, 설사 등의 임상증상이 있고 난 뒤에 균을 배출하므로, 증상 발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치료를 한다면 더 이상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화기 전염병을 방역하기 위하여 발생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000년도에 세균성이질이 대규모로 발생했던 배경을 살펴본다면, 지역 내 설사환자의 발생 증가를 늦게 감지하였다는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이었다. 따라서 복통 및 설사 증상을 보이는 개인의 적극적인 신고뿐만 아니라,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가장 먼저 발생을 인지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능동적으로 질병 발생을 감시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소화기 전염병에 대한 방역의 핵심내용이 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내 세균성 이질의 발생양상을 살펴보면 산발적으로 일어나며, 성인은 증상이 없는 반면 아동 및 노인에게서 설사 증상을 보이며, 많은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항생제의 부적절한 복용을 하는 가운데 세균성 이질균이 토착화되면서 약한 독성을 가져, 건강한 성인에서 균을 배출하면서도 임상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가 되려면 현재 토착화 양상을 보이는 제주도내 세균성 이질을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러한 건강보균자에 의한 질병전파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방역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설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하여 능동적이면서 시기적절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서 그 전파경로 및 전파원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방역관련 전담부서가 없고, 도내 방역 전담인력은 공중보건 의사 역학조사관 1명뿐인 실정으로, 효과적인 방역체계가 되려면 전담인력을 보강한 전염병관리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외의 전염병이 도내에 유입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국제자유도시로의 위상변화에 따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신종 전염병

유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립제주 검역소는 제주항 및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각종 전염병의 도내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항공 및 선박에 대한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도한 이후 전염병과 관련된 임상증상을 보이는 발생자를 빠짐없이 알아내는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방역전담팀 운영, 그리고 격리 및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의 확보 등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III.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예방체계

외식 기회의 증가와 집단급식의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식중독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 2002년 한해 제주도에서는 총 2건에 2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다. 식중독 환자는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서 전염병 발생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에 대하여 위생 조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듯 주민과 행정당국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식중독 발생은 도내 보건 행정의 위상을 보여 준다. 달리 말하면 식중독 발생은 그만큼 청정관광제주 이미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요식업소의 영세성과 위생시설 미흡, 종업원의 위생 의식 부족 등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식품위생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중점 지도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지만, 업소의 자발적인 노력도 요청되는 내용이다. 또한 각종 국내외 대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추어 행사장 주변의 음식 제조업소와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요식숙박업소에 대하여 중점 지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IV. 제언 및 맺음말

앞서 제주도내에 발생하는 전염병과 식중독에 대한 방역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현재 제주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전염병에 대한 방역과 식중독의 예방이 전제되어야만 그 위상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도 당국은 전염병과 식중독 발생이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전염병 방역 및 식중독 예방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의 이런 노력과 함께, 제주도민들도 전염병 및 식중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순한 설사로 보고 자가 임의 치료에만 의지하는 주민이 있는 한 세균성 이질의 근절은 힘들 수밖에 없으며, 위생관념의 부족으로 방문객에게 오염된 음식과 식수를 제공한다면 식중독 예방은 요원할 것이다. 또한, 전염병 유행기간 동안 관혼상제를 맞아 방문객을 통한 집단발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호응할 때,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제주도의 방역 체계가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